

칼빈의 경제윤리와 젠더

정미현(스위스 미션 21, 여성과 젠더 데스크 의장)

- I. 들어가는 말
- II. 칼빈의 경제 윤리 원칙
- III. 칼빈의 윤리적 원칙에서 본 젠더
- IV. 나가는 말

• ABSTRACT •

This article begin with introduction of Calvin's Christian social and economic ethics. These kinds of ethics are of great importance both to the church and the society at large. Particularly in the churches, one must learn to avoid discrimination by sex, race, or social class, and instead place as much value as possible on each individual. As Calvin might have put it: Each of the organs of the Holy Spirit that form the body of Christ is precious, as the Holy Spirit grants life to each part of the organism, without prejudice. This article commemorates the economic and social justice issues of Calvin's theology, setting his ethical principal focus regarding humanitas, mutua obligatio, and aequitas. Gender discourse c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but also as problem of power and hegemony. His theological thought could be combined with Gender discourse and understood as community orientation within the context of a global economic crises.

Key words : Calvin's ethic of economy, Gender, Gender Budgeting, Care economy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칼빈을 어떠한 정형화된 틀에 묶어 두려는 것도, 젠더담론이라는 21세기적 학문의 관점에 무조건적으로 16세기의 종교개혁적 유산을 떼어 맞추고자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러나 칼빈이 시도했고, 구상한 사상적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경제 정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도 유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관점을 서로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II. 칼빈의 경제 윤리 원칙¹⁾

칼빈의 경제 윤리에 근본 배경은 근본적으로 신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창조론과 섭리론에 관련되어 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돌보시며(Dominus providebit)²⁾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창 22, 8)는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정의 강조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민을 갖고 피조물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시 기(벧전 5, 7) 때문에 걱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염려와 사랑은³⁾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피조물까지도 포함되며, 피조 세계 모두가 돌보심의 대상이 된다.⁴⁾ 즉 하나님의 염려와 배려는

1) 참고: 정미현, 「칼빈 없는 칼빈주의와 자본주의?-개혁신앙에 근거한 사회-경제윤리」, 『신학 논단』, 연세대학교 신학과, 55집 2009.

2) Vgl. Regine Munz, Theologische Replik zu Care Ökonomie aus theologischer Perspektive, Vortrag gehalten am 26. Okt. 2009, auf SEK Frauenkonferenz in Bern.

3) Vgl. Johannes Calvin, Unterricht in der christlichen Religio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 14, 2,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1963.

4) Vgl. Inst. I, 16, 1.5.

이주 섬세하여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것이다.⁵⁾ 칼빈은 그의 이사야서 주석에서 하나님의 부성적, 모성적 사랑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 뿐 아니라, 모두 자녀로 삼으셨다. 때문에 부성적, 모성적 염려가 끝까지 성실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⁶⁾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성과 인간의 척도를 초월한 모든 피조물에게 향한 포괄적인 것이다. 1556년 2월 11일에 행해진 칼빈의 설교에서 칼빈의 경제 윤리 원칙의 근본적 음색을 읽어 낼 수 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대의 것일 수 있을까요?...모든 것을 탐욕스럽고 거역스럽게 먹어 치워대고 삼켜 버리는 거대한 입을 가져서는 안됩니다.”⁷⁾ 칼빈에 따르면 경제적 부라는 것은 다시 재생산되고, 순환될 때에만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정의와 공동의 선을 위한 원칙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 사상은 나그네와 과부, 고아 등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구약성서의 유대적 경제 원리(신 24, 19-22)에 기초한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에 대한 회상과 해방의 기쁨과 그에 따른 책임과 연관된다.

이러한 신론으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기본 사상은 칼빈이 최초로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루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19세기 이후 신학자들의 큰 관심을 사게 된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서 제 1계명을 해설한 것은 신론에 관련된 내용일 뿐 아니라, 또한 경제윤리에 연관된 문제이다.⁸⁾ 신론은 우상 숭배의 문제와 관련되고,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

5) Vgl. Inst. I, 17, 6

6) Vgl. Johannes Calvin, Jesajaexegese 1550, 1558 zu Jesaja 46, 3-4, zit. nach Regine Munz, Theologische Replik zu Care Ökonomie aus theologischer Perspektive, Vortrag gehalten am 26. Okt. 2009, auf SEK Frauenkonferenz in Bern.

7) Vgl. Frank Jehle, *Du darfst kein riesiges Maul sein, das alles gierig in sich hineinfrisst und verschlingt*, (Zürich: Gotthelf Verlag), 1996, 101.

8) Vgl. Friedrich Wilhelm Marquardt, *Gott oder Mammon aber: Theologie und Ökonomie bei Martin Luther*, in: *Einwürfe*, hrsg. von Dieter Schellong(u.a.),

자, 고리대금, 탐욕과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 경제 윤리의 문제와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제는 신론의 문제가 되고, 윤리적 문제로 부터 교의학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⁹⁾ 루터에게 있어서 믿음은 실재적 세계의 체계와 전체주의적 체계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¹⁰⁾ 루터는 경제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와 연결 지었고, 또 그 반대로 신론의 문제를 우상의 문제와 관련지음으로써 그의 신학은 역사적이며 교의학적 내용을 다룰 뿐 아니라, 윤리적 논의를 도출한 것이다.¹¹⁾ 루터는 실제로 돈을 대출해 준 후 이자를 과다하게 부여받은 귀족을 성찬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사회윤리적으로 규범이 되게 한 바 있다.¹²⁾

이러한 내용은 제 2 세대 종교개혁자인 칼빈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그의 신학적, 윤리적 기본 이념과 강령은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성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에 여전히 유용한 시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¹³⁾ 칼빈은 츠빙글리가 이자에 대하여 마련해 놓은 윤리적 내용을 기초로 개신교적 경제윤리의 토대를 이룬 대표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츠빙글리와 불링거에 의하여 비롯된 이자 허용과 자본의 투자 문제를 발전 시켜서 자본의 유용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노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도입해서 노동을 인간의 의무와 과제로 받아들이게 한다. 칼빈은 그러나 절제 없는 노동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 노동의 한계와 재충전의 의미를 아울러 강

(München: Chr. Kaiser), 1983, 176.

9) Friedrich Wilhelm Marquardt, *ibid.*, 183.

10) Vgl. Friedrich Wilhelm Marquardt, *ibid.*, 189.

11) Vgl. Friedrich Wilhelm Marquardt, *ibid.*, 205.

12) Vgl. Friedrich Wilhelm Marquardt, *ibid.*, 201.

13) 참고: 울리히 두크로, 칼빈의 사회관과 경제에 대한 이해, 한국목회자 협의회 15차 열린대화 마당, 2009년 9월 11일, 덕수교회 강연 원고 6-47.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ed. by Edward Dommen, (Geneva: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2006.

조하였다. 칼빈은 인간적 재능과 손과 발을 이용한 노동을 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반대로 죄악시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이윤추구의 극대화화 탐욕적 태도를 항상 비판하였다.

실제로 칼빈의 영향이 있는 나라들에서 경제적, 산업적 발전이 더 빨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비단 막스 베버만의 견해가 아니다.¹⁴⁾ 칼빈이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고 “번영의 신학”을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스 베버의 이론을 곧이곧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칼빈에 대하여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칼빈 전문 연구가 막스 가이저(Max Geiger)이다. 가이저에 의하면 칼빈은 개인주의적 부의 축적,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재산만 늘리는 것을 철저히 비판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근면하고 열심히 노동해도 체제적 구조악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다.¹⁵⁾

칼빈은 중세기적 기독교에서 용인된 걸식행위를 중단하도록 했으며, 그의 조직력과 신학적, 정치적, 사회적 통찰을 통하여 가난구제의 문제를 체계적이며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철저히 노력한 사람이다.¹⁶⁾ 따라서

14)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Tübingen: J.C.B. Mohr), 1920.

15) Vgl. Max Geiger, Calvin, Calvinismus, Kapitalismus, in: Gottesreich und Menschenreich, E. Staehelin zum 80. Geburtstag, (Basel:Helbing Verlag) 1969, 231-286. 칼빈, 칼빈주의와 자본주의가 단순히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은 칼빈 전문 연구가 막스 가이저 이외에도 앙드레 비일러(André Biéler), 요아킴 스타트케(Joachim Staedtke), 스탠포드 리드(W. Stanford Reid), 로널드 S. 월레스(Ronald S. Wallace)등에 의해서도 주장된 내용이다. 참고 로널드 S. 월레스,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박성민역,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5, 123-138쪽. 스탠포드 리드, 요한 칼빈은 자본주의의 창시자인가? 홍치모역, 성광문화사 1984. 특히 가이저와 스타트케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그의 명제 가운데 구분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버가 칼빈 시대 상황을 역사적으로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였고, 칼빈의 본래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후기 청교도 사상을 칼빈의 사상으로 혼돈한 것이라 지적하고 비판한다.

가난한 자도, 부요한 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공동체의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고대 윤리적 가치가 누구나 자기의 몫이 있는 법(Suum cuique)을 강조했다면, 계몽주의 이후 급진적 평등주의는 모두가 동등해야 함(Aequum cuique)을 강조했다. 칼빈의 입장은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벗어난 것이다. 인간에 의하여 정의가 이루어 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에게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의 극단과는 전적으로 다른 실재이다.¹⁷⁾

칼빈 당시 제네바 시는 종교적, 사회 상황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또한 가톨릭과의 첨예한 대치 상황은 제네바 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는 새로운 정착민의 이전으로 제네바의 경제는 회복기에 들어섰는데, 이때 이자율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는 경제와 산업을 부흥시킨다기보다 오히려 억압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칼빈은 교회 전승의 계승보다, 성경에 대한 상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자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윤추구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한가지임을 파악한 칼빈은 유통자본으로써의 돈에 적절한 이자를 부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죄된 인간성의 모습을 칼빈은 직시하기 때문에 이자제도를 허용하고 권장하면서도, 그 제도가 남용되고 가난한 자와 약자의 착취의 틀로 작용하는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선다. 칼빈이 이자를 허용한 것은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생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유명한 신명기 설교(신명기 24: 19-2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자에 대한

16) Vgl. Hans Scholl, *Verantwortlich und frei. Studien zu Zwingli und Calvin, zum Pfarrerbild und zur Israeltheologie der Reformation*, (Zürich: TVZ), 2006, 139.

17) Vgl. Hans Scholl, *ibid.*, 152ff.

배려를 매사에 철저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차 문제에 관련한 그의 분명한 입장은 제네바의 금융가 클로드 자키누스(Claude de Sachin)와 나눈 서신교환에서 드러난다. 그는 이윤을 추구하는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얻는 이윤을 통하여 남에게는 해를 입히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돈은 공익을 위하여도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며,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쓰이게 되는 돈은 적정하게 통제되어야 할 것을 말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무척 강조한다. (마태 6, 24)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분의 자리를 빼앗긴다.

이차에 관련하여 칼빈이 마련한 7가지 규정은¹⁸⁾ 특히 은행업자 자키누스에 대한 칼빈의 답변에서 읽어낼 수 있다. 칼빈은 특히 성서 중 신명기 23, 19, 시편 55, 12: 눅 6, 34: 출 22, 25, 쥘 22, 12에 주목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칼빈은 자본의 대출과 생산적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정 수준의 이자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아래의 사항과 같은 전제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대출이 고리대금업이 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칼빈이 규정한 황금율의 내용은 이러하다.¹⁹⁾

- ① 극빈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재난이나 긴급히 구조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서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도 소자본 사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대출과 자본이 필요하다.

18)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hrsg. von Petrus Barth und Guilelmus Niesel, Vol. II. (De l'usure) (München: Kaiser Verlag), 1970, 392-396; Joannis Calvini, *Corpus Reformatorum*, 38/1, 248f, nach Ernst Ramp, Die Stellung von Luther, Zwingli und Calvin zur Zinsfrage, (Zürich: Zwingli Verlag), 1949; Lettre de Cl. De Sachin à J. Calvin, *Corpus Reformatorum*,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12, col 210-211, Brunsvigae 1874.

19) Vgl. Christoph Stückelberger, *Ethischer Welthandel*, (Bern:SEK) 2001. Christoph Stückelberger, *Gerechter Preis?* Institut für Sozialethik (Bern:SEK) 1990.

자본의 원금은 열심히 생산적으로 일하여 갚아야 되지만, 원금 갚는 일조차도 베킭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탕감해 주는 배려를 해야 한다.

- ②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윤의 극대화만을 생각하고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윤추구를 통하여 필요한 의무를 행하여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그 이윤이 쓰여야 한다. 빈부격차는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자제하게 하는 효과와도 연관이 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든지 모든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칼빈이 에스겔 18장을 주해하면서 설명하는 한 중요한 내용이다.
- ③ 자연스런 정의와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법칙에 따라 남에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는 정의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정치적 공존, 인간의 정의를 추구하는 율법의 정치적 용도(Usus politicus legis)로부터 유추되는 것이다.
- ④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을 더욱 유용하고, 효과적이며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비성 대출은 칼빈이 철저히 반대하였다. 그는 유용한 이자와 해로운 이자를 구분한 것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황금률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것을 한걸음 너머서서 칼빈은 무조건적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가치를 달리 둔 것이다.
- ⑤ 우리에게 일반적이고 관습적으로 허용된 것이나 세상적 불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위의 척도와 규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혹은 기회주의적 척도가 이자와 대출 문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지에 상응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만이 그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⑥ 개인적으로 유용한 가치만을 추구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두 계약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경제적 파급효과, 거시 경제적 영향을 염두에 두어서 공동의 선(common good, bien public)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즉 한 개인의 행동이

전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개체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윤리 전체는 공동체를 향한 것으로 철저히 방향 지워져 있다.

- ⑦ 너무 지나치고 과도한 것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정의로움이 우리가 취할 우선적인 행위이다. 인간의 법률은 최소한의 것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신앙인은 그것을 넘어서서 개신교적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나가야 하며, 스스로 절제하고 자율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율법은 제 3의 용도인 교훈적 기능(Tertius usus legis)을 한다.

III. 칼빈의 윤리적 원칙에서 본 젠더

칼빈은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이 공동체의 조화와 더불어 살며 나누는 삶의 의미를 강조한 신학자이다. 그에게 있어서 공동체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을 세 가지 원칙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인간성(humanitas)”, 다른 하나는 “상호 의무성(Mutua obligatio)”, 마지막은 “공평성(aequitas)”이다. “인간성”은 행위자로서 인간의 윤리적 행동의 근거는 공동체적 윤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좋은 행위, 옳은 행위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서로 얽혀 있는 연관성 속에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런 행위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성을 무시하고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점에서 좋은 행위, 올바른 행위에는 진정한 인간성, 인격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다. “상호 의무성”은 인간적 공존의 기본 골격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성 속에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관련된 “인간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인간은 상호적 의무를 지닌다. 이것은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강요된 관계나 의무가 아닌 것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뒤따른다. 우리가 선물로 부여받은 능력과 재능과 물질적 축복(Gabe) 속에는 따라서 책임(Aufgabe)이 들어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행위를 위한 규정과 특히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는 “공평성”의 원칙이 작용한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윤리적 기본 골격이 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이웃하는 인간에 대하여 형평성을 지니고 행위한다는 것은 불가분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공평성의 원칙은 인간적 행위의 술어가 되며, 이것은 창조와 계약과 화해의 관계성 안에서 수평적 관계 안에 놓인 인간과 다른 피조물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칼빈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강조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유기체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은 연합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구별된다. 그 영은 연합을 보증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유기체적 몸의 모든 지체에다 차별 없이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몸 안에서 지체가 구별됨은 유기체적 질서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이 감당하는 여러 형태의 기능과 관련된다.”²⁰⁾ 이러한 윤리적 원칙에서 상호 의무란 자율적 의무와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입장으로 생긴 것이며, 국가와 국민, 개인과 개인, 여와 남,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것을 뜻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계약을 맺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었다. 칼빈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니콜라스 쿠자누스에 이르는 전통을 수용하였다. 그는 복종권과 계약의 구속력을 국민의 주권이라는 교리적 협약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계약 상대자가 다른 계약 상대자에게 의무를 지킬 때만 계약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의식적으로 배제하였다. 칼빈은 자신의 계약사상을 자신의 신학과 연관 짓고 있다. “계약이라는

20) 요아킴 스타트케, 『장로교의 뿌리 칼빈』, 정미현 역, (서울: 만우와 창공), 2009, 73.

것은…머리와 몸의 지체들 간에 유기체적 관계를 일깨우는 방법이다. 그 가운데에서 근거가 된 의무감과 권리는 유효하다. 의무에 따른 두 유기체 사이의 약속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법적 형태로, 개인적 합법성의 핵심은 의무로 인해 보호되고 보증된 자유에 의해서 비롯된다.”²¹⁾

인간은 칼빈에 의하면 활동적인 삶과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 사회 안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삶을 풍요로이 할 수 있는 번영을 위한 사회, 경제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간의 기계론적 평등이 아니라, 구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인간성, 상호 의무성, 공평성의 원칙을 칼빈은 강조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엄성을 지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뉠대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사회 경제 활동과 그 구조란 것은 바로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써 작용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²²⁾ 이것은 성, 젠더, 계급, 사회계층, 인종 등 전 분야에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칼빈이 경제 정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외에 이후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비롯된 유럽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사상가였던 점이 아울러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²³⁾ 특별히 칼빈은 계몽주의와 평등사상, 인권을 바탕으로 한 루소와 앙리 뒤낭 등에 영향을 미치게

21) 요아킴 스타트케, *ibid.*, 149.

22) Peter Opitz, *Kriterien aus Calvins wirtschaftsethischer Haltung zur Verleihung eines "Prix Calvin"*, unveröffentlichter Vortrag, 2009.

23) Vgl. Hans Scholl, *ibid.*, 2006, 135ff, 142ff.

되었다. 그것은 여성인권보호와 양성 평등을 위한 사상적 기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형태로 드러나는 약자에 대한 체계적, 사회적 배려의 기반이 되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칼빈의 이러한 신학적 담론이 성 평등의 원칙을 말할 뿐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젠더 담론에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여성 해방, 여성 인권에 대한 칼빈의 의견과 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칼빈의 글을 해석하는 각도와 차이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추론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칼빈이 비록 현재적 척도로 볼 때 매우 미흡하고, 제한된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공적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냈다는 것이다.²⁵⁾

이제부터는 “인간성”, “상호의무성”과 “공평성”이라는 칼빈의 원칙을 젠더담론과 구체적으로 연관 지어 고려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21세기 젠더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려 한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버틀러가 젠더를 어떤 고정된 명사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동사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젠더는 명사가 아니며, 자유롭게 떠도는 일군의 속성도 아니다... 결국 본질의 형이상학이라는 물려받은 담론 안에서 젠더는 수행적이라는

24) Jane Dempsey Douglass, *Women, Freedom, and Calvi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이보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학자로는 John Lee Thompson, *John Calvin and the Daughters of Sarah. Women in Regular and Exceptional Roles in the Exegesis of Calvin, His Predecessors, and his Contemporaries*, (Genève: Librairie Droz S.A.) 1992. 이외 대부분의 서구 여성신학자들은 칼빈의 글을 정확적 고려 없이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전체적 맥락을 보지 못한채 인용하거나 비판한다. 한국의 여성신학의 논의들에서 주로 이러한 서구 여성신학자들의 글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문제이다.

25) 참고: 정미현, 「교회론과 기독교 윤리의 상관관계-칼빈의 교회론의 여성신학적 수용」, 『한국 조직신학회 논총』, 2009.

것이 입증되었다. 여기서 수행적이라는 의미는 목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젠더는 언제나 행위이다. 비록 그 행위에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주체에 의한 행위는 아니지만 말이다.”²⁶⁾ 또한 젠더는 이렇게 버틀러에 의해 정의되기도 한다. “젠더는 총체성이 영원히 보류되어서, 주어진 시간대에 완전한 모습을 갖출 수도 없는 어떤 복합물이다.”²⁷⁾ “젠더는 변화하거나 맥락화된 현상으로서,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수한 일련의 관계를 둘러싼 상호 수렴의 지점이다.”²⁸⁾ “...젠더의 속성이 표현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적인 것이라면, 이런 속성들은 자신이 표현하거나 드러낸다고 하는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것이다.”²⁹⁾ 주디스 버틀러는 자연적,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를 조리되지 않은 날것이나 혹은 인위성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의 상태로, 사회학적 성(gender)을 의미하는 젠더는 익힌 것과 문화적인 것과 관련하여 설명한다.³⁰⁾ 그래서 “...젠더란 카프카의 ‘형무지’에서 글씨를 새기는 고문기구가 피고인의 피부에다 인식 불가능한 글씨를 새기듯, 몸 위에 글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각인이 자기 안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 장치가 도구와 몸의 만남을 주선하는가, 또 이런 의례적인 반복에는 어떤 간섭들이 가능한 가이다. ‘실제적’이고 ‘성적으로 사실인’ 것은 구성물, 즉 본질의 허상들이다. 몸은 이런 구성물에 근접하기를 강요받지만 결코 근접할 수 없다.”³¹⁾ 그러므로 우리는 성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실제적인 것과 환영적인 것 사이의 균열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26)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역, (서울: 문학동네), 2008, 130-131.

27) 주디스 버틀러, *ibid.*, 114.

28) 주디스 버틀러, *ibid.*, 103에서 재인용.

29) 주디스 버틀러, *ibid.*, 350.

30) 주디스 버틀러, *ibid.*, 156.

31) 주디스 버틀러, *ibid.*, 358.

결국 버틀러의 견해대로 보면, 젠더 담론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본질적 존재 규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사회, 문화, 역사적 복합적 산물로서, 그 행위를 촉구하는 결의권, 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규정과 권력의 문제가 젠더 담론의 핵심이다. 즉 젠더 문제를 언급할 때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 규정성에 한계 짓지 말고, 복합적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권력의 문제와 관련짓고, 권력의 사실적 실재성을 인정하되, 분산과 재배치의 분배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것이다. 버틀러는 권력은 현실적으로 초월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권력은 거부될 수도, 철회될 수도 없다. 다만 재배치될 뿐이다.”³²⁾ 젠더의 실체는 지속된 사회적 수행들을 통해 창조되므로 권력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권력과 젠더의 연결구조로 볼 때 칼빈의 경제 윤리와 젠더의 연결 고리도 찾아 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경제적 격차는 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분배, 재배치, 나눔의 윤리를 강조하게 되고, 개체의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유기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점에서 칼빈의 경제 윤리의 한 중심 주제를 젠더 담론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전제로 하고, 상호수혜성,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단순히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이원론으로 구분하거나 상위, 하위적 가치를 가늠하거나, 그것을 사회적 규범에 고정시키자는 의미는 아니지만,³³⁾ 사회학적으로 길들여지거나 고정되지 않은 채 생물

32) 주디스 버틀러, *ibid.*, 318.

33) 또 한 번 버틀러의 용어를 빌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진정하거나 거짓된 젠더 행위, 사실적이거나 왜곡된 젠더 행위 또한 없다. 결국 진정한 젠더 정체성이라는 가정은 규제가 만든 허구임이 드러날 것이다... 젠더는 참이나 거짓도, 실재적이거나 외양적인 것도, 원본이나 모방본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을 믿을 만하게 담아내는

학적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다. 즉 연민(Mitgefühl und Empathie)과 배려³⁴⁾, 헌신적 돌봄, 원형적, 다면적 사고방식과 행동 유형³⁵⁾, 협력과 연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성적 가치와 여성적 행동양식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대되는 무감각, 무관심, 자기 연민, 선적, 일면적 사고와 행동유형, 지배 등은 남성적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나뉘어져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속성상의 여성적 가치가 남성적 가치에 대비해서 상생과 연대를 강조하여 살아가야하는 21세기 우리의 상황에서 더욱 소중히 여겨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간성”, “상호의무성”과 “공평성”을 주축으로 하는 “돌봄의 윤리”가 빠진 인간의 행위는 이 공동체의 삶의 조화를 망가트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적 경향성이나 성적 특성을 떠나 모든 인간에게 상호적으로 작용한다.³⁶⁾

지금까지 젠더와 경제윤리를 연결하는 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

젠더는 또한 철저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 *ibid.*

34)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와 여성의 자궁(Raeham)을 뜻하는 말이 어원적으로 연관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출 34, 6: 시 6, 4:116, 5) 신론과 젠더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Magdalene L. Frettlöh, *Gott Gewicht geben: Bausteine einer geschlechtergerechten Gotteslehre*, (Neukirchener: Neukirchen-Vluyn), 2006.

35)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이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방법이 미리암의 방법과 달랐던 것과 같다. 미리암은 다른 여성들과 더불어 어린 시절에 모세의 생명을 지혜롭게 구해 주었을 뿐 아니라, 출애굽의 지난한 과정가운데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힘을 보태주며 생명과 해방을 향한 행진을 거들어 준 것이다. Vgl. Alice Shalvi, *Frauen und Führung*, in: *Kol Ischa : jüdische Frauen lesen die Tora*, hrsg. Von Yvonne Domhardt, Esther Orlow, Eva Pruschy, (Zürich: Chronos), 2007.

36) 예를 들어 Queer 개념도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성을 함축한다. 즉 동성애, 이성애와 이에 연결된 성 정체성의 단순한 이원론적 구조를 해체하고, 더욱 포괄적인 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이를 확대해서 사회 구성원과 문화에서 타자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행동양식을 이루어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으나 아직 포괄적으로 확산,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시대적으로 간략히 구분해 보면³⁷⁾, 197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지도력 향상과 발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소외계층의 강화(empowerment)와 힘의 재분배를 통한 권력 재배치의 문제가 중요하였다. 1980년대 말경부터는 경제발전 논의에서 젠더 문제가 등장하고 젠더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여성의 문제를 인권문제로써 접근하는 시도가 행하여 졌는데 유엔의 인권 문제 접근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젠더 담론의 확산과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언급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는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성의 새로운 전환과 연구가 시도, 도입되었다. 2000년대 초부터는 성담론에 대한 다양성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던 종래의 이원적 구조를 확산하는 개념들이 소개되며 성담론의 고정성을 탈피하도록 돕는다.

결론적으로 젠더에 대한 담론은 고정되거나, 단순히 성평등의 일차원적 측면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점진적으로 확산된 성, 성적 성향성, 계급, 인종, 국적, 종교, 신체적 조건이나 결합 등의 포괄적 측면(a multi-faceted Concept)을 다루는 교차적 복합성(Intersectionality)³⁸⁾ 을 염두에 두고, 한 사회나 집단구조, 체제 안에서의 힘과 권력에 대한 복합적 문제성을 다루는 열린 상태로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7) Vgl. Christa Wichterich, *Gender als politisches Projekt. Wie bitte geh's zur Geschlechtergerechtigkeit?*, in: Perspektive Feb. 2010, 2.

38) 2009년 9월 9일 방문, <http://www.cgc.uni-frankfurt.de/intersectionality/index.shtml>

IV. 나가는 말

신자유주의의 문제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을 불안정한 상황과 더욱 불평등의 구조로 몰고 가는 카우보이식 자본주의 (“cowboy” capitalism)³⁹⁾ 를 종식시키고, 포괄적 의미에서 젠더 정의의 문제를 민감하게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돌봄의 경제(Care economy)”⁴⁰⁾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부 격차를 제도적으로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부의 재분배를 투명성 있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성인지적 예산법(Gender Budgeting)⁴¹⁾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적 경제(demokratische Ökonomie), 여성주의적 경제(feministische Ökonomie)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수입과 지출의 자본의 흐름을 성 정의, 여남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불평등을 시정하고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경제적 위기가 있었던 1980년대에 성인지 예산법이 호주에서 도입된 이후 1990년대에 유엔의 베이징 여성대회와 후기 베이징 여성대회의 영향으로 성인지 예산법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공공기관의 차원에서 도입되고 확산되어왔다. 그러나 교회의 예산과 지출에 이러한 방법이 적용된 예는 극히 드물다. 즉 교회재정운영의

39) Cf. Stephanie Seguino, *We Care! Feminist responses to the Care Crises*, The WIDE Annual Conference 2009, University of Basel, 18-20. June, 2009.

40) 협의의 차원에서 이것은 어린이의 양육과 환자와 노약자를 돌보는 간병인 체제와 임금, 노동 조건 등을 분석하고 불공정을 시정하는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 여성의 몫이며,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없이 대부분 이러한 일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차원에서 이것은 생산과 재생산, 생명을 화두로 하는 경제 정의, 지속가능한 대안적 경제문제 전반에 해당된다.

41) 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sensitive budgeting이라고도 불린다. 유럽의 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Vgl. *Gender Budgeting, Handbuch zur Umsetzung geschlechtergerechter Budgetgestaltung*, hrsg. von Nadja Bergmann (u.a.), (Wien: Attac), 2004.

투명성이 보장되기 그만큼 어렵고 경제 정의에 대한 논의가 교회와 신학계에 아직도 너무 빈약하다는 뜻이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공의 오렌지 수입거부, 생산노동자의 착취로 만들어진 옷은 국제적인 유명상표라도 거부하는 공정거래(Fair Trade Movement) 운동의 한 방편인 깨끗한 옷 입기(Clean Cloth Movement) 운동, 소득의 0.7%를 지구 남반구의 사람들과 나누자는 운동, 대안적 가치의 지역화폐사용 등등 일련의 소비자 정신과 공정거래, 경제정의 운동들은 모두 공동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생겨난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개신교 가운데 칼빈을 뿌리로 하는 장로교가 70%를 차지하는 한국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의 활동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지원을 활발히 진행하지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개발원조뿐 아니라, 기독교계도 기금 운영, 정책을 연합화하고, 기업의 복지화 정책을 기독교적 정신과 연결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거시적 시각으로 유엔이 설정한 새천년 운동의 제3세계 부채상환운동과 빈곤 퇴치운동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한다. 한국도 이제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대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사회와 개발 도상국가들에 환원되도록 하는 윤리의식이 철저히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종교박해를 피하여 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 타향살이와 이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칼빈이 기아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정의 실현을 신학적, 실천적 최우선의 과제로 삼은 것을 거울삼아, 이제 우리는 한반도라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아니라, 지구 전체로 시각을 돌려 지구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첨예한 대립의 중재적 역할을 해야 될 때이다.

참고문헌

- 올리히 두크로, 『칼빈의 사회관과 경제에 대한 이해』, 한국목회자 협의회 15차 열린대화 마당, 2009년 9월 11일, 덕수교회 강연 원고 6-47.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서울: 문학동네, 2008,
- 요아킴 스태트케, 정미현 역, 『장로교의 뿌리 칼빈』, 서울: 만우와 장공, 2009.
- 정미현, 『칼빈 없는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 개혁신앙에 근거한 사회-경제윤리』, 『신학 논단』, 연세대학교 신학과, 55집 2009.
- _____, 『종교개혁시대의 여성과 여성신학적 교회론』, 『또 하나의 여성신학 이야기』, 서울: 한들 출판사, 2007.
- _____, 『교회론과 기독교 윤리의 상관관계 - 칼빈의 교회론의 여성신학적 수용』, 『한국 조직신학회 논총』.
2009. Joannis, C. *Opera Selecta*. hrsg. von Petrus Barth und Guilelmus Niesel Vol. II, (De l'usure), München: Kaiser Verlag, 1970.
- Johannes, C. *Unterricht in der christlichen Religio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 14;16;17,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1963.
- Regine, M. *Theologische Replik zu Care Ökonomie aus theologischer Perspektive*. Vortrag gehalten am 26. Okt, 2009, auf SEK Frauenkonferenz in Bern.
- Frank, J. *Du darfst kein riesiges Maul sein, das alles gierig in sich hineinfrisst und verschlingt*. Zürich: Gotthelf Verlag, 1996.
- Jane, D. D. *Women, Freedom and Calvi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 Friedrich, W. M. *Gott oder Mammon aber: Theologie und Ökonomie bei Martin Luther*. in: Einwüf, hrsg. von Dieter Schellong(u. a.), München: Chr. Kaiser, 1983.
- Gender Budgeting. Handbuch zur Umsetzung geschlechtergerechter Budgetgestaltung*. hrsg. von Nadja Bergmann (u. a.), Wien: Attac, 2004.
- Elsie, A. M.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New York: Paulist Press,

2001.

- Ernst, R. *Die Stellung von Luther, Zwingli und Calvin zur Zinsfrage*. Zürich: Zwingli Verlag, 1949.
- Roelker, N. L. *The Role of Noblewomen in the French Reformation*. in: Archive for Reformation History, ed. by H. Bornkamm, Vol. 63, 1972.
- Cl. De Sachin, Lettre de Cl. De Sachin à J. Calvin, Corpus Reformatorum,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12, col 210–211. Brunsvigae, 1874.
- Hans, S. *Verantwortlich und frei. Studien zu Zwingli und Calvin. zum Pfarrerbild und zur Israeltheologie der Reformation*. Zürich: TVZ, 2006.
- Stephanie, S. *We Care! Feminist responses to the Care Crises*. The WIDE Annual Conference 2009. University of Basel, 18–20, June, 2009.
- Alice, S. *Frauen und Führung*. in: Kol Ischa : jüdische Frauen lesen die Tora, hrsg. Von Yvonne Domhardt, Esther Orlow, Eva Pruschy. Zürich: Chronos, 2007.
- John, L. T. *John Calvin and the Daughters of Sarah. Women in Regular and Exceptional Roles in the Exegesis of Calvin, His Predecessors, and his Contemporaries*. (Genève: Librairie Droz S.A., 1992.
- Christoph, S. *Ethischer Welthandel*. Bern: SEK, 2001.
- Christoph, S. *Gerechter Preis?*. Institut für Sozialethik, Bern: SEK, 1990.
- Max, W.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Tübingen: J.C.B. Mohr, 1920.
- Max, G. *Calvin, Calvinismus. Kapitalismus*. in: Gottesreich und Menschenreich, E. Staehelin zum 80. Geburtstag. Basel: Helbing Verlag, 1969.
- André, B.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ed. by Edward Dommen. Geneva: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2006.
- Peter, O. *Kriterien aus Calvins wirtschaftsethischer Haltung zur Verleihung eines "Prix Calvin"*. unveröffentlichter Vortrag, 2009.
- Christa W. *Gender als politisches Projekt. Wie bitte geht's zur Geschlechtergerechtigkeit?*. in: Perspektive Feb. 2010, 2.

202 『기독교사회윤리』 제19집

<http://www.cgc.uni-frankfurt.de/intersectionality/index.shtml>

논문투고일 : 2010. 03. 03

심사개시일 : 2010. 05. 12

게재확정일 : 2010. 05. 30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칼빈의 사회, 경제 윤리를 강조하는 신학은 시대를 뛰어 넘어 여전히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 중요성을 지닌다. 특별히 교회와 신학은 성, 인종, 사회 계층 등의 차별을 줄여 나가고 각 개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칼빈이 성령을 통한 유기체론을 강조하였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각 지체들은 차별 되거나 비하됨 없이 생명력 있게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런 점에서 칼빈의 사회 경제 윤리의 주축을 이루는 인간성, 상호 의무성, 공정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젠더 담론과 연결점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젠더는 성평등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힘과 헤게모니적 권력의 포괄적 의미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가 남긴 사회 윤리 사상 가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신학적 가치를 젠더 논의와 연결하여 세계 경제위기의 대안적 윤리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칼빈의 경제 윤리, 젠더, 성인지 예산, 돌봄의 경제
